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소비세, 비만, 설탕, 인상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소비세, 비만, 설탕, 인상, 건강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2. 11.
OECD, 정크푸드에 세금
부과 논의

2016. 4. 11.
전 세계는 지금 비만
과의 전쟁 중

2016. 6. 22.
프랑스, 탄산음료와 초
콜릿 바 세금 인상하나..

2016. 9. 2.
프랑스, 건강 해치는
식품에 세금 인상 고려

핵심이슈
도출

“프랑스, 건강 해치는 식품에 세금 인상 고려”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프랑스, 건강 해치는 식품에 세금 인상 고려

2016년 9월 2일, 프랑스 일간지 The Local France는 현재 프랑스 재무부가 건강하지 않은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만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현재 프랑스 재무부는 '설탕세'로 불리는 설탕 음료 및 에너지 드링크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의 비만 감소로 이어지기에는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덧붙여 일반 식품에 적용되는 5.5%의 소비세(VAT)를 건강하지 않은 식품(unhealthy food)에 20%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20%로 인상될 수 있는 식품에는 주류, 캐비어, 과자류와 식물성 지방 등이 있다.

최근 프랑스는 일명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 연간 4%씩 증가하는 비만 인구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세금 인상과 영양표시 강화, 설탕 함량이 높은 어린이용 식품의 광고 금지 등이 그 대안이다. 그 동안은 제안된 정책들이 농식품 업계의 반대로 실행이 무산되었지만, 비만 예방을 위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유럽과 아메리카 국가들 중 선도적으로 비만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설탕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이다. 비만뿐만이 아닌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또한 앞서서 제시하는 등 식품 분야의 규제 변경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비만과 식품 안전성 문제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문제로, 프랑스에서 시행된 규제·정책 등이 유럽연합과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프랑스의 향후 행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對 프랑스 및 유럽연합 국가 수출에도 어떠한 규제가 적용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전 세계의 비만율과 비만 아동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설탕 줄이기'와 '정크푸드' 가격 인상 등 많이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규제장벽 또한 높아지고 있다. 비만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소비자들의 최근 트렌드와 다르지 않은 만큼, 제품의 성분과 마케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들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제품의 설탕 함량과 트랜스 지방, 칼로리에 주목하는 등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이 많아졌다. 향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으로의 진출 시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건강한 제품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출전략이 요구될 전망이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